

→(2表·1表→1表·2表)→(2變)→2深”=“1내재-(1조월적)→(이중조월)→(2조월적)→2내재” ; 호-중-중 ; 1-2-3 등등)가 반영하고 있다. 또 위의 세表記의 比較 설명에서, 3)식表記에 비한 이 2)식表記의 설명의 空白이 그 非分析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 순서(1) :

첫째 :

異(逆)方向적 變形 1零(1φ)의 公式 :

“1深-(1φ)→(2表→1表)→(2φ)→2深” 즉

“1形-(1形적)→(2語→1語)-(2形적)→2形” 즉

“1q-(1q적)→(2T→1T)→(2q적)→2q”

公式(1)로는 :

{(1q→2T)} (*앞 p.192의 異(逆)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의 公式 참조)

公式(2)로는 :

q(1T→2T) 및

둘째 :

異(逆)方向적 變形 2零(2φ)의 公式 :

“2深-(2φ)→(1表→2表)→(1φ)→1深” 즉

“2形-(2形적)→(1語→2語)-(1形적)→1形” 즉

“2q-(2q적)→(1T→2T)→(1q적)→1q”

公式(1)로는 :

{(2q→1T)} (*앞 p.192의 異(逆)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의 公式 참조)

公式(2)로는 :

q(2T→1T)은 :

언제나 형태적(=變形 零(φ)적=매듭 零(φ)적=非核적=q적)인 성격을 띤, 형태(=深=q)와 어휘(=表=T)의 異(逆)方向적 포괄(=q)/피포괄(=T)적 共存位置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순서(1)의 포괄(=q)적(=相互拒否적) 共存位置이다.

순서(2) :

첫째 :

異(逆)方向적 變形 1有·2有(=1變·2變)의 公式 :

“1深-(1變)→(2表·1表→1表·2表)→(2變)→2深” 즉

“1形-(1語적)→(2語·1語→1語·2語)→2語적)→2形” 즉

“1q-(1T적)→(2T·1T→1T·2T)→2q” 즉

公式(1)로는 :

{(1q→T2)}

(*앞 p.192의 異(逆)方向적 並置적 共存位置의 公式 참조)

公式(2)로는 :

q(1T→2T)

둘째의 첫째 :

異(逆)方向적 變形 1有(=1變)의 公式 :

“1深-(1變)→(2表·1表→1表·2表)→(2變)→2深” 즉

“1形-(1語적)→(2語·1語→1語·2語)→2形” 즉

“1q-(1T적)→(2T·1T→1T·2T)→2q” 즉

公式(1)로는 :

$\{1(1q-2T)\}$

公式(2)로는 :

$q(1T \leftrightarrow 2T)$

둘째의 둘째 :

異(逆)方向적 變形 2有의 公式 :

“ $2深-(2變) \rightarrow (1表 \cdot 2表 \rightarrow 2表 \cdot 1表) - (1變) \rightarrow 1深$ ” 즉

“ $2形-(2語적) \rightarrow (1語 \cdot 2語 \rightarrow 2語 \cdot 1語) - (1語적) \rightarrow 1形$ ” 즉

“ $2q-(2T적) \rightarrow (1T \cdot 2T \rightarrow 2T \cdot 1T) - (2T적) \rightarrow 1q$ ” 즉

公式(1)로는 :

$\{2(2q-1T)\}$

公式(2)로는 :

$q(2T \leftrightarrow 1T)$ 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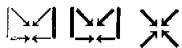
위 순서 (1)의 포괄체(=q)적(=相互拒否적) 共存位置에 의해서 포괄되는, 언제나 형태적(=變形 ϕ 적=매듭 ϕ 적=非核적=q적) 성격을 띤, 순서 (2)의 異(逆)方向적 피포괄(=T)적(=並置적) 共存位置이다.

* 따라서, 이 3)식 表記의 “순서(1)(=포괄체)→순서(2)(=피 포괄체)”만이 가장 分析된 (순서)이다. 여기에는 混同이나 主張이 없고 오직 그 分析적(순서)의 認定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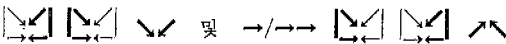
이러한 認定을, 형태적 성격을 띤 兩分法적 用語(예 : $1초월 \rightarrow 2초월 \rightarrow$ 내재 ; “ $1深-(1\phi) \rightarrow (2表 \rightarrow 1表) - (2\phi) \rightarrow 2深$ ” = “ $1초월-(1초원적) \rightarrow$ (내재) - ($2초월적) \rightarrow 2초월$ ” ; $1초 \rightarrow 2초 \rightarrow$ 중 ; $11 \rightarrow 21 \rightarrow 3$, 등등)가 반영하고 있다. 또 위의 세 表記의 比較설명에서, 1), 2)식 表記에 비한 3)식 表記의 설명의 非空白은 그 分析적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이상 세 表記의 차이의 그림상으로서의 반영을 위의 설명에 연결시키면 아래와 같다(*주의 : 그림의 종류는 : 화살 표시그림, 부채꼴 표시그림, 對角線 표시그림의 순으로 하고, 그 각각의 그림에서 가는 선/굵은선의 구별은 세 表記 각각의 (순서)를 특징 짓는 力點(=強調) 位置를 가리킴 ; 화살표시에서 等方向적 分析 표시는 : (\leftrightarrow)와 같이 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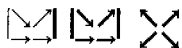
1.

(1) : $\rightarrow / \rightarrow / \righta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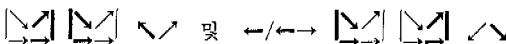
(* 앞 p.187/pp.203-205의 그림 3/6 및 위 설명 참조 ; (왼쪽의) 굵은선(또는 가는線)은 力點(=強調) 位置를 가리킴)

(2) : $\rightarrow \righta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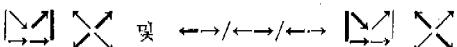
2.

(1) : $\leftarrow / \leftarrow / \leftarr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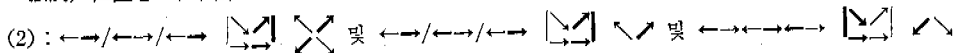
(* 앞 p.187/pp.203-205의 그림 3/6 및 위 설명 참조 ; (왼쪽의) 굵은線(또는 가는線)은 力點(=強調) 位置를 가리킴)

(2) : $\leftarrow \leftarrow$ 

3.

(1) : $\leftrightarrow / \leftrightarrow / \leftrightarrow$ 

(*앞 p.187/pp.203-205의 그림 3/6 및 위 설명 참조; (왼쪽의) 가는線(또는 굵은線)이 力點(= 強調) 位置를 가리킴)



위의 1)식, 2)식, 3)식 表記의 각각에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3)식 分析적 表記에 있어서는, 화살표시, 부채꼴 표시, 對角線 표시가 모두 이 表記의 分析적 성격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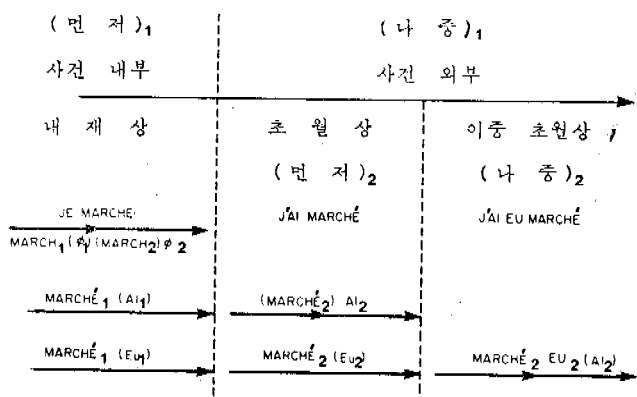
○1)식 및 2)식 非分析적 表記에 있어서는,

첫째: 각각의 오른쪽의 부채꼴 표시 및 對角線 표시에 있어서는 모두, 表記가 갖는 두 가지의 가능성(*뒤 p.218, 221 참조) 즉 1)식 및 2)식 表記가 3)식 分析적 表記에 대하여 非分析적임을 認定하는 表記의 가능성과 그렇지 않고 3)식 分析적 表記와 같이 分析적임을 主張하는 表記의 가능성 중에서, 그 非分析성을 認定하는 表記이다;

둘째: 각각의 왼 쪽의 화살표시 및 부채꼴표시에 있어서는, 그 非分析성을 認定하지 않고 3)식 分析적 表記와 같이 分析적 表記임을 主張하는 表記이다. 이 主張하는 表記를, 그 본래의 位置인 認定하는 表記에 맞춰서 배열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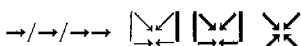
아래에 위와 같이 뒤섞인 表記를 정리하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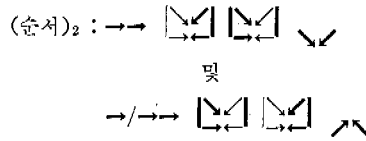
첫째(=*인쇄상 둘째/셋째): 오른쪽에다 세로 줄로 위에 3)식 分析적 表記를, 아래에 그 非分析성을 認定하는 表記를 배치하고, 둘째(=*인쇄상 첫째): 그 위/아래 중간에 해당하는 맞은편의 왼편에다 그 非分析성을 認定하지 않고 3)식 分析적 表記와 같은 分析성을 主張하는 表記를 배치하여, 等方向적 1)식表記와 (準)異(逆)方向적 2)식 表記로 나누어 정리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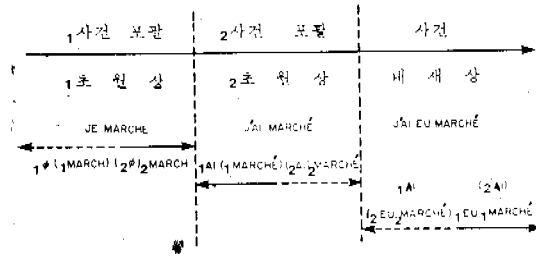
(分析的임을 主張하는) 그림 5 (*앞 p.194, 196 참조)

*주의: 앞(p.212)의 화살표시 그림, 부채꼴 표시 그림, 對角線表示 그림의 비교항 참조. 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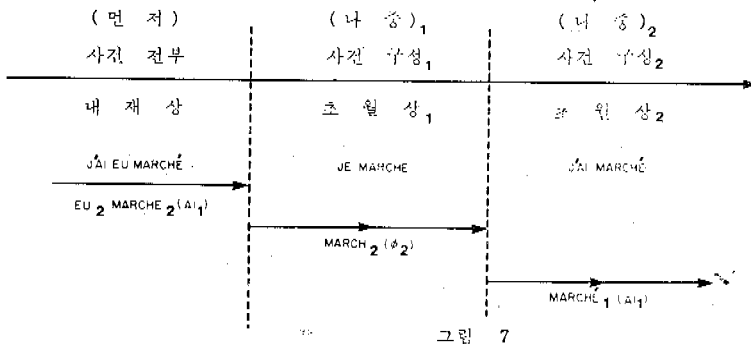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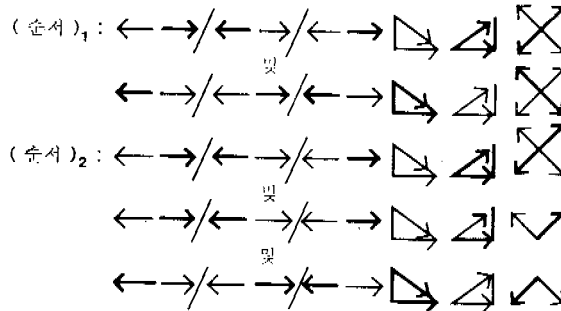


*아래 그림 7에서와 같이, 誤認(=混同)을 認定하지 않고, 아래 그림 7과 내용상으로는 같은 이 그림 5문, 그림 4와 같은 分析된 異(逆)方向的 화살표시라고 주장하는 화살표시임에 주의.



(分析的) 그림 4 (*앞 p.193, 197, 20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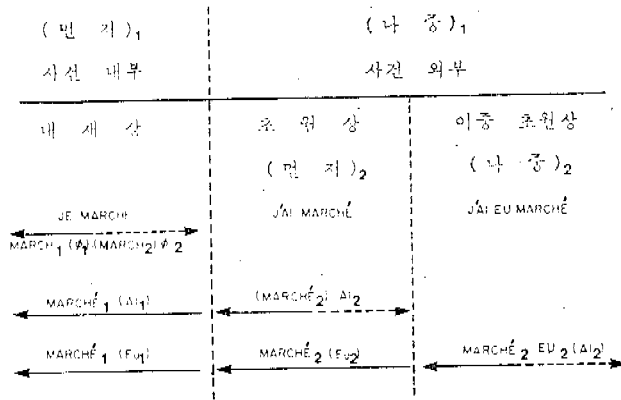
*주의 : 위(그림 5)와 같은 주의 :



(非分析적임을 認定하는) 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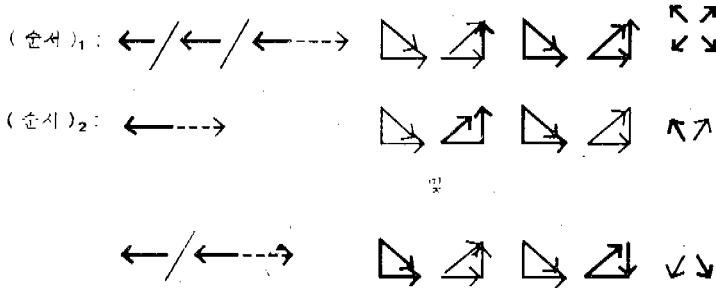
*주의 : 위(그림 4)와 같은 주의 :

*위 그림 4의 주의項 (순서)₂의 첫째줄의 異(逆)方向적 分析의 화살표시(←→)를 等方向적 非分析的 화살표시(→)로 誤認(=混同)했음을 認定하는 화살표시임에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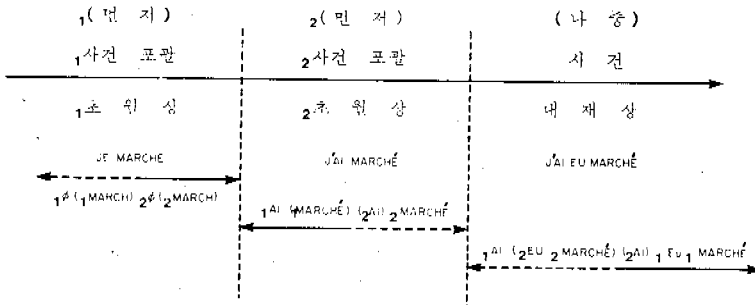


(分析的임을 主張하는) 그림 3 (*앞 p.187, 193, 196 참조)

*주의 : 앞(p.212의 화살표시 그림, 부채꼴표시 그림, 對角線표시 그림의 비교항 참조, 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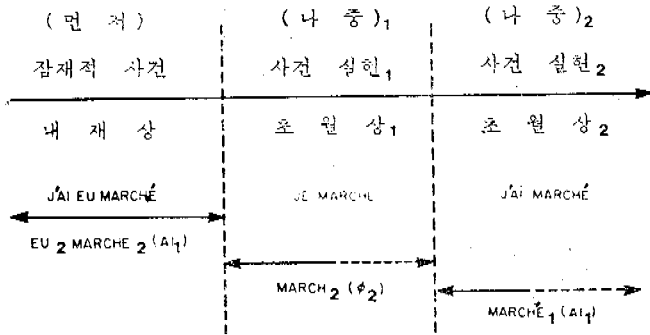
*위 그림 8에서와 같이, 誤認(=混同)을 認定하지 않고, 위 그림 8과 내용상으로는 같은 이 그림 3을, 그림 4와 같은 分析된 異(逆)方向的 化살표시라고 主張하는 化살표시임을 주의.



(分析적) 그림 4 (*앞 p.193, 197참조)

*주의 : 위 그림 3과 같은 주의 :

*바로 앞의 그림 4에서의 그림의 비교와 같음.



(非分析적임을 認定하는) 그림 8

*주의 : 위 그림 4와 같은 주의 :

*위 그림 4의 주의 項(순서)2의 첫째 줄의, 형태위주의 異(逆)方向적 分析적 화살표시(←→)를, 어휘위주의 (準)異(逆)方向的 非分析的 화살표시(↔)로 誤認(=混同) 했음을 認定하는 화살표시임에 주의.

*주의 : (非分析적임을 認定하는) 그림 7과 그림 8 (*위 참조)은, 각각, 1)식 전통식 等方向적 (分析적임을 主張하는) 그림 5와 2)식 脫 전통식 (準)異(逆)方向적 (分析적임을 主張하는) 그림 3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 만일에 이 기준을 등한시하게 되면, 그 구별은 흐려진다. GUILLAUME식 노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기준을 등한시하고 等方向性과 異(逆)方向性을 혼동하는 예로는, 等方向적(어휘위주의) 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 개념으로서의 MARTINET의 아말감(amalgame)이라는 개념 (=관사+명사는 하나의 단위(=等方向적 共存位置)이다. 즉 관사는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명사내부에 들어 있는 잠재적 의미가 형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라는 개념)과 GUILLAUME의 “관사+명사”의 (分析적임을 主張하는)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 개념과를 동일시하는 예를 들 수 있다(J. TEYSSIER, La grammaire de l'interrogation et ses présupposés, in *Revue des langues romane*, t. LXXX, 1er fasc. p.56, (33) 참조).

이어서 다시 원(○)과 (⊥)를 사용한 통일된 그림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다(*주의 : 等方向은 ⊙로, (非)異(逆)方向은 ⊙로 구별 표시함 : 拙稿, 變形理論과 그 類型의 定立作業, 語學研究(23:03), 1987, 참조 :)

1

(1) :

*이하 空白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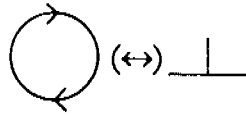
2

(1) :

*이하 空白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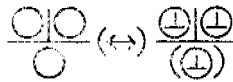
(1):

첫째:



가는 線의 ㉠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 } (⊥)의 윗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과 굵은 線의 ㉠과의 異(逆)方向적 共存 } 와 { (⊥)의 밑 부분과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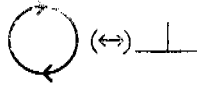
와의 異(逆)方向적 (↔) 共存位置



윗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밑 부 } 위 두 ㉠의 윗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
분과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 와 { 것과 그 두 ㉠ 각각의 밑 부분과의 異(逆)方向
적 共存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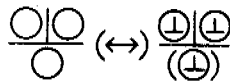
와의 異(逆)方向 (↔) 적 共存位置

둘째:



굵은 線의 ㉠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 } (⊥)의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과 가는 線의 ㉠과의 異(逆)方向적 共存 } 와 { 윗 부분 둘과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位置

와의 異(逆)方向적 (↔) 共存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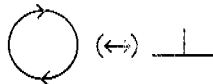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윗 부 } 위 두 ㉠의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
분과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 와 { 것과 그 두 ㉠의 윗 부분 각각과의 異(逆)方向
적 共存位置,

의 異(逆)方向적 (↔) 共存位置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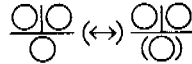
첫째:



위 (1)의 첫째와 둘째에 의해서 포괄되는, } 위 (1)의 첫째와 둘째에 의해서 포괄되는,
가는 線의 ㉠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굵 } (⊥)의 윗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은 線의 ㉠과의 異(逆)方向적 共存(=따라서 포괄= } 와 { 밑 부분의 異(逆)方向적 共存(=따라서 포괄=並置)
並置) 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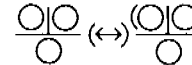
와의 異(逆)方向적 (↔) 共存位置

둘째의 첫째 :



위 (1)의 첫째와 둘째에 의해서 포괄되는, } 위 (1)의 첫째와 둘째에 의해서 포괄되는,
 (⊥)의 윗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 와 (⊥)의 윗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밑 부분과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 밑 부분과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와의 異(逆)方向적 (↔) 共存位置

둘째의 둘째 :



위 (1)의 첫째와 둘째에 의해서 포괄되는, } 위 (1)의 첫째와 둘째에 의해서 포괄되는,
 (⊥)의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 와 (⊥)의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윗 부분과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 윗 부분과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와의 異(逆)方向 (↔) 적 共存位置

*이상이 “포괄(—형태)→피포괄(=어휘)”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의 포괄적(순서) : ⊙→⊥→⊙이다. 그런데 (1)식 및 (2)식 表記에서는 위의 空白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순서)가 없고, 뒤에 시작되는 바와 같이, 오직 위(순서)의 끝 부분 : ⊙를 1) 等方向적으로 誤認(混同)한(순서) ⊙→⊥→⊙, 2) (準)異(逆)方向적으로 誤認(=混同)한(순서) : ⊙→⊥→⊙, 만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포괄적 순서란, 앞에 이미 나온 公式에서의 變形(=매듭=어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 위(순서) 1)의 變形(φ)(=매듭φ=어휘φ=형태)의 포괄제 : ⊙를 출발점으로 하는(순서) 2)의 變形(有)(=매듭 有=어휘의) 피 포괄제 : ⊙, 밑에 반하여, 뒤 (1)식 및 (2)식 表記에 있어서는 變形(φ)와 變形(有)의 구별(=分析)이 없이, 變形(有) 즉 위(순서) 2)의 ⊙를 1) 等方向적 ⊙ 그리고 2) (準)異(逆)方向적 ⊙로 誤認(=混同)하고, 그것을 출발점으로 하여, 1) 等方向적 變形(φ)→變形(有), 2) (準)異(逆)方向적 變形(φ)→變形(有), 로 그(순서)가 誤認(=混同)되고 있다. 이것은 이들 1)식 및 2)식 表記에 있어서, 表記상으로 두가지의 表記의 가능성을 각각 갖게 한다. 즉 :

첫째 表記의 가능성 : 그것이 誤認(=混同)된 表記임을 認定하지 않고, 올바른 表記이라고 主張하는 가능성 : 이 때의 表記는, 變形(=매듭=어휘=核)을, 그것에 力點(=強調)을 두는 이 表記의 특성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수식어(=어휘적=매듭적)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 내지 主張하고 있음이 반영된 특징을 갖게 된다. 즉 變形(有)(=매듭有=어휘=核)를, 그 자체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變形(φ)(=매듭φ=형태=非核)와의 非分析적(=誤認·混同된) 共存位置임을 認定치 않고, 그것이 變形(φ)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變形(有)와의 分析적(=올바른) 共存位置라고 생각하고 있음이 반영된 表記 즉 變形(有)를 둘로 갈라서(=分析해서), 左를 變形(φ)右를 變形(有)로 表記하고(↔ 表記 참고), 따라서 그와 같이 分析 表記된 變形(有)를 정당화 하기 위해서(=정당화가 반영된)(수평선상으로 表記하는 경우) 그 左에 變形(φ)를 그 右에 變形(有)란 分析 表記하여, 이들 두 左右의 變形(φ)/變形(有) 表記가 중간의 左/右의 變形(φ)/變形(有) 表記와 分析된 것처럼 表記하는 것이 곧 그것이다. 그리하여 이 表記에 사용되는 用語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초→중→중”, “내제→초원→이중초월”, “深層→變形→表面” 등과 같이, 그들 用語의 어휘적 미의에 力點(=強調)이 두어졌음이 분명한데도, 따라서 어휘와 형태가 非分析적이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그것이 형태(=“초→중”, “내제→이중 초월” 등)와 어휘(=“중”, “초월”, 등)로 分析된 것으로 설명(=主張)되고 있음을 본다. 사용된 表記상의 變形(有)적(=非分析적) 특징과, 설명(=主張)상의 變形(φ)적(=分析적) 특징 사이에, 이와 같이 차질이 있음은, 이 설명(=主張)이 變形(有)적임을 말해 주는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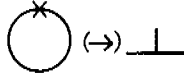
둘째 表記의 가능성 : 위 첫째 表記의 가능성과는 반대로, 이 둘째 表記는, 그 첫째 表記가 誤認

(=混同)된 表記임을 認定하고, 그것의 참 모습을 들어 내는 表記이다. 이 때의 表記는, 첫째 表記의 경우와는 반대로, 變形(=매듭=어휘=核)을, 그것에 力點(=強調)을 두는 이 表記의 특성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수식어(=어휘적=매듭적)로서 파악하고, 결코 그 자체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 내지 主張하고 있지 않음이 반영된 특징을 갖게 된다. 즉 이때의 表記는, 가장 分析된 表記라고 認定되는 變形(φ)(=非매듭=형태=非核)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變形(有)(=매듭=核=어휘)와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의 表記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에서 變形(有)적 表記를 바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둘째 表記는 그러한 객관적 비교를 용이하게 해 주는 表記, 즉 表記상으로는 變形(φ)적 表記와 같되, 첫째 : 그것이 變形(有)적 表記임을 수식어로서 나타내는 表記, 혹은 또, 둘째 : 變形(有)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變形(φ)적 表記를 지향하고 있으나 아니냐 라는 기준이 반영된 表記과 야 한다. 이 첫째와 둘째의 조건에 부합되는 表記는, 2)식(準)異(逆)方向적 表記이다. 즉 이 表記는 變形(φ)적 表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變形(φ)적 表記에서와 같이, 變形(有)은 둘로 갈라서(=分析해서), 左를 變形(φ) 右를 變形(有)로 表記하고(=↔表記 참고), 變形(φ)식 表記(즉 3식 表記)에서와 같이, (수평선상으로 表記하는 경우), 그 左에 變形(φ)를, 그 右에 變形(有)을 表記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이 變形(有)적 表記임을 認定만 하면 된다. 이 때 사용되는 用語는, 變形(φ)적 表記에서와 같이, “₁초월→₂초월→내제”, “₁초→₂초→중” 등이 된다.

다음에 1)식 等方向적 表記의 경우는, 變形(φ)적 表記를 지향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2)식(準)異(逆)方向적 表記의 둘째 表記의 가능성 : “₁초월→₂초월→내제” “초₁→초₂→중”, “深層→深層→表面”, 등을 바꾼, “내제→₁초월→초월₂”, “중→₁초→초₂”, “表面→深層→深層₂”, 등의 表記를 하고, 그대로 그것을 變形(有)적 等方向적 共存位置의 表記임을 認定하면 된다.

*주의 : 위(p.216) 空白에 이어 여기서 부터 시작함.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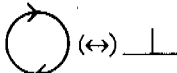


위 (3)식 表記에서의 순서(2)의 첫째(*앞 참조)를, 許은 線의 〇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역시 許은 線의 〇과의 等方向적 共存位置로 誤認(=混同)한, 어휘적 성격을 띤 “피침가(=어휘)→첨가(=형태)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중, 가장 토대가 되는 피침가체(=어휘)적 共存位置

위 (3)식 表記에서의 순서(2)의 첫째(*앞 참조)를, (⊥)의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윗 부분과의 等方向적 共存位置로 誤認(=混同)한, 어휘적 성격을 띤 “피침가(=어휘)→첨가(=형태)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중, 원편의 〇과 함께(=원편의 〇에 대해서는 첨가체인) 가장 토대가 되는 피침가체(=어휘)적 共存位置,

와의, 等方向적 (→) 共存位置.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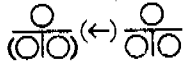
위 (3)식 表記에서의 순서(2)의 첫째(*앞 참조)를, 許은 線의 〇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가는 線의 〇과의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로 誤認(=混同)한, 어휘적 성격을 띤 “피실현(=어휘)→실현(=형태)”의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중, 가장 토대가 되는 피실현체(=장제체)적 共存位置

위 (3)식 表記에서의 순서(2)의 첫째(*앞 참조)를, (⊥)의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윗 부분과의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로 誤認(=混同)한, 어휘적 성격을 띤 피실현(=어휘)→실현(=형태)의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중, 원편의 〇과 함께(=원편의 〇에 대해서는 실현체인) 가장 토대가 되는 피실현체(=장제체)적 共存位置,

와의 (準)異(逆)方向적 (↔) 共存位置.

(2) :

첫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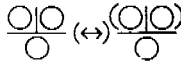


위 (순서)1의 피침가체 ㅅ를 구성하는, (⊥)의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윗 부분과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와 위 (순서)1의 피침가체 (⊥)를 구성하는, (⊥)의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윗 부분과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와의 等方向적 (→) 共存位置.

(2) :

첫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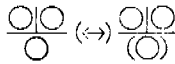


위 (순서)1의 피실현재(=잠재체) ㅅ를 실현하는, (⊥)의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윗 부분과의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와 위 (순서)1의 피실현재(=잠재체) (⊥)를 실현하는, (⊥)의 밑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윗 부분과의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와의 (準)異(逆)方向적 (↔) 共存位置

(2) :

둘째 :



위 (순서)1의 피침가체 ㅅ를 구성하는, (⊥)의 윗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밑 부분과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와 위 (순서)1의 피침가체 (⊥)를 구성하는, (⊥)의 윗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밑 부분과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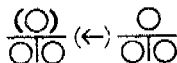
와의 等方向적 (→) 共存位置

*이상이 위 (1)의 “피침가(=어휘)→침가(=형태)”의 等方向적 共存位置 ㅅ의 구성상의(=침가적) (순서)이다. 요컨대 이 共存位置는 앞의 “포괄(=형태)→피포괄(=어휘)”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의 포괄적 (순서) : ㅅ→⊥→㉠에 비하여, 끝의 ㉠을 等方向적으로 誤認(=混同)한 共存位置의 等方向적 구성적(=침가적) (순서) : ㅅ→⊥→㉠만이 있다.

*이 等方向적 구성적(=침가적) (순서)에 관한 이상의 表記는, 이미 앞의 3)식 表記의 결론 부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장 分析된 3)식 表記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둘째 表記의 가능성에 속한다. 즉 變形(φ)적 3)식 表記 : “1초월→2초월”(=순서1)→“내재”(=순서2), “1초→2초”(=순서1)→“중”(=순서2), “1深層→2深層”(=순서1)→“表面”(=순서2), 등을 바꾼, “내재”(=순서1)→“1초월→초월2”(=순서2), “表面”(=순서1)→“1深層→深層2”(=순서2), 등의 用語개념으로된 表記이다. 이 表記는 3)식 變形(φ)적 表記를 지향하는 表記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아래의 2)식 表記와 같이, 3)식 표기와 외관상 같은 用語를 사용한 표기, 즉 : “1초월→2초월“(=순서1)→“내재”(=순서2), 등을 사용하지 없이, 위의 等方向적 둘째 表記의 가능성, 즉 : “내재”(=순서1)→“1초월→초월2”(=순서2), 등을 사용하고, 그대로 그 表記의 等方向적 變形(有)적 성격을 認定하면 된다.

(2) :

둘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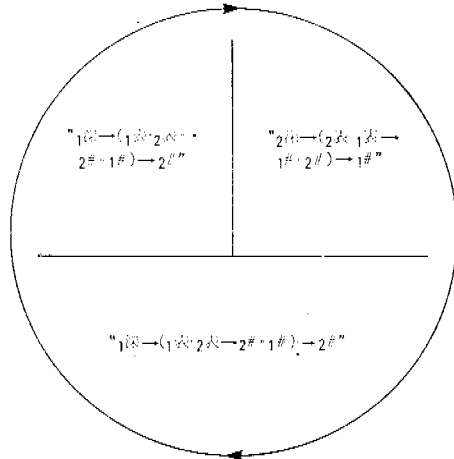
위 (순서)1의 피실현재(=잠재체) ㅅ를 실현하는, (⊥)의 윗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밑 부분과의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와 위 (순서)1의 피실현재(=잠재체) (⊥)를 실현하는, (⊥)의 윗 부분에 力點(=強調)을 둔, 그것과 (⊥)의 밑 부분과의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와의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

*이상이 위 (1)의 “피실현체(=잠재제=어휘)→실현체(=형태)”의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 〇의 실현상의 (순서)이다. 요컨대 이 共存位置는 앞의 “포괄(=형태)→피포괄(=어휘)”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의 포괄적 (순서) : 〇→┆→①에 비하여, 끝의 ①를 (準)異(逆)方向적으로 誤認(=混同)한 共存位置의 순서 : 〇→┆→〇만이 있다.

*이 (準)異(逆)方向적 실현적(순서)에 관한 이상의 表記는, 원편의 1)식 表記와 같은 이유로, 둘째 表記의 가능성에 속한다. 위의 1)식 表記와 다른 점은, 이 2)식 表記는 變形(φ)적 3)식 表記를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3)식 표기와, 사용되는 用語는 같게 하되, 다만 그 表記가 變形(有)적 성격을 띤 表記임을 認定하면 될 것이다. 주: “1초월→2초월(=순서1)→“내재”(=순서2), “1초→2초(=순서 1)→“중”(=순서2), “1深層→2深層”(=순서1)→“表面”(=순서2), 등으로 表記하고, 다만 그 表記의 變形(有)적 성격을 지적하면 된다.

이상에서 비교된 : 1) 異(逆)方向적 分析적 變形(φ)적 表記와 그것을 (準)異(逆)方向적 變形(有)적으로 誤認(=混同)한 것을 認定하는 (準)異(逆)方向적 非分析적 表記, 그리고 2) 異(逆)方向적 分析적 變形(φ)적 表記와 그것을 等方向적 變形(有)적으로 誤認(=混同)한 것을 認定하는 等方向적 非分析적 表記, 를 각각 오른쪽의 세로 줄로 묶어서 위의 순서대로 위/아래로 배치하고(*주의 : 인쇄상 뒤에 배치함), 그 원편에다 각각 1)에 대해서는 : 그 誤認(=混同)을 認定하지 않고 그 等方向적 非分析적 表記가 異(逆)方向적 分析적 表記임을 主張하는 表記를, 2)에 대해서는 : 그 誤認(=混同)을 認定하지 않고 그 (準)異(逆)方向적 非分析적 表記가 異(逆)方向적 分析적 表記임을 主張하는 表記를, 오른쪽 위/아래의 묶음 각각의 중간 부분에 마주 보이게(*주의 : 인쇄상 먼저 배치함), (앞 pp. 213-216에서의 이와 같은 성격의 화살표시 그림의 비교에서와 같이) 배치시키면 아래와 같다 :



(分析的임을 主張하는) 그림 13.

*주의 : 여기서 空白(#)은 分析的인 것으로 主張되고 있음에 주의

(순서)(1) : 첫째 : 아래 그림 12의 (순서)(2)의 첫째 公式의 左를 1(=먼저)로 하고 右를 2(=나중)로 하는 (準)異(逆)方向的 公式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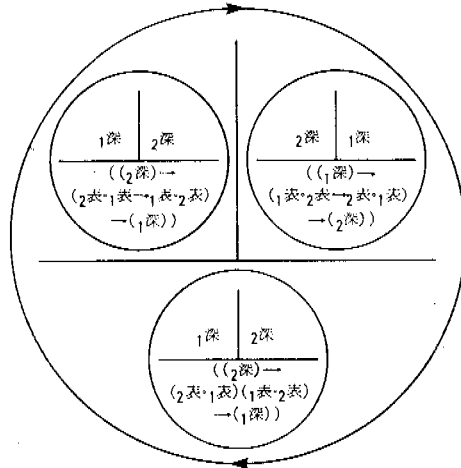
$$“1深-(1變)→(1表·2表→2#·1#)-(2#)→2深”$$

둘째 : 오른쪽 그림 12의 (순서)(2)의 둘째 公式의 左를 2(=나중)로 하고 右를 1(=먼저)로 하는 (準)異(逆)方向的 公式 :

$${}_2\text{深}-(2\text{變})\rightarrow({}_2\text{表}\cdot{}_1\text{表}\rightarrow{}_1\#\cdot{}_2\#)-({}_1\#)\rightarrow{}_1\#$$

(순서)(2) : 아래 그림 12의 (순서)(1) 公式의 左를 1(=먼저)로 하고 右를 2(=나중)으로 하는 (準)異(逆)方向的 公式(*앞 p.187, 193, 196 그림 3 참조) :

$${}_1\text{深}-(1\text{變})\rightarrow({}_1\text{表}\cdot{}_2\text{表}\rightarrow{}_2\#\cdot{}_1\#)-({}_2\#)\rightarrow{}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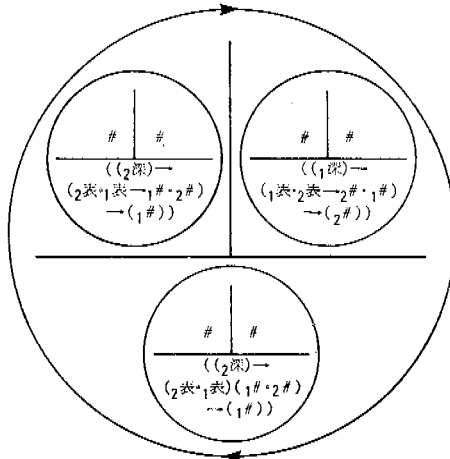
(分析的) 그림 9.

(순서)(1) : 첫째 : 앞 (分析的) 그림 9와 같음.

둘째 : //

(순서)(2) : 첫째 : //

둘째의 첫째 및 둘째 //



(非分析的의 意味 認定하는) 그림 12.

*주의 : 여기서 空白(#)은 非分析的인 것으로 認定되고 있음에 주의.

(순서)(1) : 뒤 그림 10의 公式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된 (準)異(逆)方向적 公式(*뒤 p.224 참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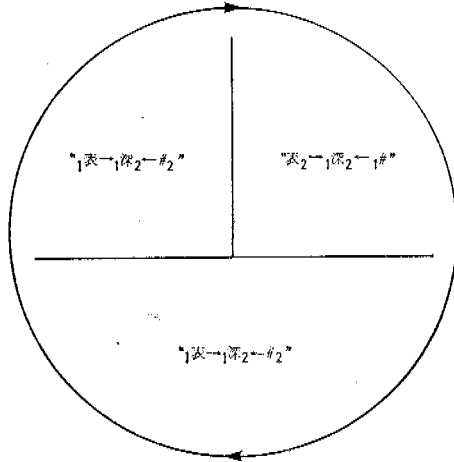
$${}_2\text{深}-(2\text{變})\rightarrow({}_2\text{表}\cdot{}_1\text{表}\rightarrow{}_1\#\cdot{}_2\#)-({}_1\#)\rightarrow{}_1\#$$

(순서)(2) : 첫째 : 앞 그림 10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된 (非)異(逆)方向적 公式 :

$${}_2\text{深}-({}_2\text{變})\rightarrow({}_2\text{表}\cdot{}_1\text{表}\rightarrow{}_1\# \cdot {}_2\#)-({}_1\#)\rightarrow{}_1\#$$

둘째 : 앞 그림 10에서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된 (準)異(逆)方向적 公式 :

$${}_1\text{深}-({}_1\text{變})\rightarrow({}_1\text{表}\cdot{}_2\text{表}\rightarrow{}_2\# \cdot {}_1\#)-({}_2\#)\rightarrow{}_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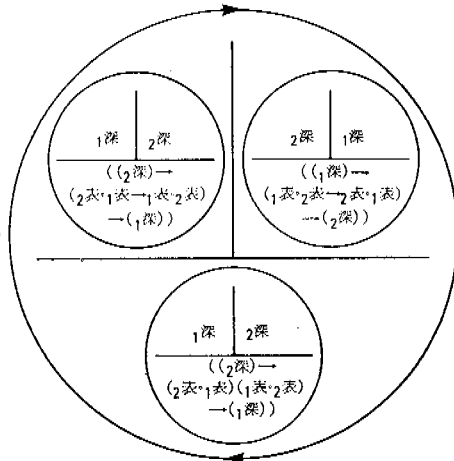
(分析的임을 주장하는) 그림 11

*주의 : 여기서 空白(#)은 分析적인 것으로 주장되고 있음에 주의.

(순서)(1) : 첫째 : 오른쪽 그림 10의 (순서)(2)의 첫째 公式의 左를 1(=먼저)로 하고 右를 2(=나중)으로 하는 等方向적 公式 : “ ${}_1\text{表}-({}_1\text{變})\rightarrow{}_1\text{深}\leftarrow({}_2\#)-\#_2$ ”

둘째 : 오른쪽 그림 10의 (순서)(2)의 둘째 公式의 左를 2(=나중)로 하고 右를 1(=먼저)로 하는 等方向的 公式 : “ ${}_2\text{表}-(\text{變}_2)\rightarrow{}_1\text{深}_2\leftarrow({}_1\#)-\#_1$ ”

(순서)(2) : 오른쪽 그림 10의 (순서)(1) 公式의 左를 1(=먼저)로 하고 右를 2(=나중)로 하는 公式(*앞 p. 194, 196 그림 5 참조) : “ ${}_1\text{表}-({}_1\text{變})\rightarrow{}_1\text{深}_2\leftarrow({}_2\#)-\#_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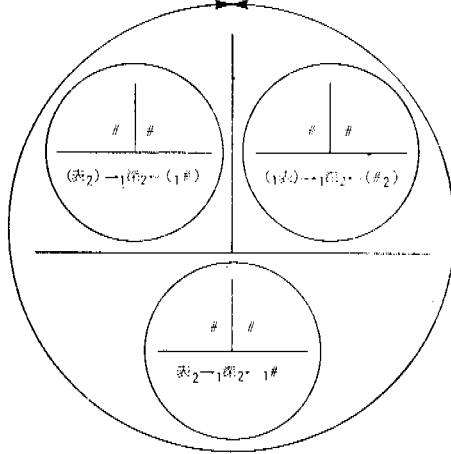


(分析的) 그림 9.

(순서)(1) : 첫째 : “ ${}_1\text{深}-({}_1\phi)\rightarrow({}_2\text{表}\rightarrow{}_1\text{表})-({}_2\phi)\rightarrow{}_2\text{深}$ ”

둘째 : “ ${}_2\text{深}-({}_2\phi)\rightarrow({}_1\text{表}\rightarrow{}_2\text{表})-({}_1\phi)\rightarrow{}_1\text{深}$ ”

(순서)(2) : 첫째 : “ ${}_1\text{深} \rightarrow ({}_1\text{變}) \rightarrow ({}_2\text{表} \cdot {}_1\text{表} \rightarrow {}_1\text{表} \cdot {}_2\text{表}) \rightarrow ({}_2\text{變}) \rightarrow {}_2\text{深}$ ”
 둘째의 첫째 : “ ${}_1\text{深} \rightarrow ({}_1\text{變}) \rightarrow ({}_2\text{表} \cdot {}_1\text{表} \rightarrow {}_1\text{表} \cdot {}_2\text{表}) \rightarrow ({}_2\text{變}) \rightarrow {}_2\text{深}$ ”
 둘째의 둘째 : “ ${}_2\text{深} \rightarrow ({}_2\text{變}) \rightarrow ({}_1\text{表} \cdot {}_2\text{表} \rightarrow {}_2\text{表} \cdot {}_1\text{表}) \rightarrow ({}_1\text{變}) \rightarrow {}_1\text{深}$ ”



(非分析적임을 認定하는) 그림 10.

*주의 : 여기서 空白(##)은 非分析的인 것으로 認定되고 있음에 주의.

(순서)(1) : 위 그림 9의 (순서)(2)의 첫째 公式의 右를 左로 하고 左를 空白(#)의 右로 하는 等方向的 公式(바로 위 참조) : “ ${}_2\text{表} \rightarrow ({}_2\text{變}) \rightarrow {}_1\text{深}_2 \rightarrow ({}_1\text{#}) \rightarrow {}_1\text{#}$ ”

(순서)(2) : 첫째 : 위 그림 9의 (순서)(2)의 둘째의 첫째 公式의 右를 左로 하고 左를 空白(#)의 右로 하는 等方向的 公式(*바로 위 참조) : “ ${}_2\text{表} \rightarrow ({}_2\text{變}) \rightarrow {}_1\text{深}_2 \leftarrow ({}_1\text{#}) \rightarrow {}_1\text{#}$ ”

둘째 : 위와 같은 公式의 둘째의 둘째 公式의 右를 左로 하고 左를 空白(#)의 右로 하는 等方向的 公式(*바로 위 참조) : “ ${}_1\text{表} \rightarrow ({}_1\text{變}) \rightarrow {}_1\text{深}_2 \leftarrow ({}_2\text{#}) \rightarrow {}_2\text{#}$ ”

이상에서, 통일된 그림으로, 1)식 等方向식 表記과 2)식 (準)異(逆)方向식 表記에서의, 그 非分析성을 認定하는 表記와, 그것을 認定하지 않고 그것이 3)식 分析적 表記와 같이 分析적임을 主張하는 表記, 사이의 차이를 결론적으로 설명하였다. 되풀이 해서 그 요점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

○分析적임을 主張하는 表記

* 위 그림 설명 및 그림에 딸린 公式에서 空白(#)은 형태의 空白(#)을 나타낸다. 그런데 형태를 중요시하고 거기에 力點(=強調)을 두는, 空白(#)이 없는 형태와 어휘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를 가장 分析된 共存位置의 기준으로 삼는 이상, 이 형태의 空白(#)은 어휘만의 존재를 말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형태적 空白(#)을 형태라고 主張하는 것은 그 형태가 어휘적 성격을 띤 형태임을 말한다. 즉 어휘에 의해서 가리워진 형태를 형태라고 主張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휘란 본질적으로 分析不能의 것이고 형태란 分析可能의 것이므로, 이 主張은 分析可能의 어휘에 分析可能의 형태가 가리워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즉 分析不能의 어휘가 (分析可能의) 형태를 1)식 표기의 경우에는 等方向적으로, 2)식 표기의 경우에는 異(逆)方向적으로 分析하고 있다고 主張하는 것이 된다. 즉 分析되고 있지 않은 어휘와 형태의 共存位置를 分析된 어휘와 형태의 (等方向 또는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라고 主張하는 것이 된다. 위 그림의 설명과 이에 딸린 公式에서 空白(#)으로 表記된 것의

가치(=의미)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지닌다.

예컨대, 1)식 表記의 公式: “ ${}_1表 \rightarrow ({}_1變) \rightarrow {}_1深 \leftarrow ({}_2#) - {}_2#$ ” 또는 2)식 表記의 公式: “ ${}_1深 - ({}_1變) \rightarrow ({}_2表 \cdot {}_1表 \rightarrow {}_1# \cdot {}_2#) - ({}_2#) \rightarrow {}_2#$ ”에서, 空白(#)의 가치(=의미)는, 형태(=非매듭=非核=非서술어)의 空白(#)을 “認定하지 않는 表記”의 입장에서 볼 때는, 1)식 表記에서나 2)식 表記에서나 어휘(=1)식에서는 深; 2)식에서는 表)적(=매듭적=核적=서술어적)인 성격을 띤, 어휘(=매듭=核=서술어)와 형태(=非매듭=非核=非서술어)의 (等方向 또는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一致), 즉 위 公式를 보고 곧 그 空白(#)의 位置를 배울 수 있다고 主張하는, 深, (變), 表이다. 그러므로 深, (變), 表는 모두, 위에 말한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즉 어휘(=매듭=核=서술어)와(은) 分析(離)된(포괄하는=一致시키는=선택/의도하는) 형태(=非매듭=非核=非서술어)의 空白(#)을 認定하지 않고, 어휘(=매듭=核=서술어)와(은) 分析(離) 안된(구성하는/실현하는=一致/선택·의도하지 않는) 형태(#) (=非매듭=非核=非서술어)를 主張한다는 의미에서의, 그리고 그 “主張”은 “主張”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휘(=매듭=核=서술어)에만 力點(=強調)을 두고 있다는 것을 認定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형태적(=非매듭적=非核적=非서술어적)인 가치(=의미)를 지닌다. 바로 이것이 이 “主張하는 表記”가 갖는 특징이다. 즉 위 公式에서 左/右 둘로 “갈라져 있지 않은”(=分析/(左와 右가)一致/(左가 右에 의해서) 선택·의도되지 않은)것을 “갈라져 있는”(=分析/(左와 右가)一致/(左가 右에 의해서) 선택·의도된) 것으로 主張하는 특징이다. 이것을 앞에서 主觀적(=어휘적=매듭적=核적=서술어적=통사론적=형태론과 통사론을 단어의 총위와 문장의 총위에서 각각 分析(=구별)하지 않고 오직 문장의 총위에서의 통사론만이 있(支配)하는, 그리고 그것은 단어의 총위와 문장의 총위에서 각각 통사론이 구별된다고 主張하는 것이 되는=단어의 총위와(가) 문장의 총위가(를)一致/선택/의도하지 않는(=포괄하지 않는)=(단어의 총위가 문장의 총위(를) 구성/실현하는=(단어의 총위가 문장의 총위에 의해서) 선택·의도되는) 특징이라고 말한 바 있다(앞 pp.201-202; 206-207 및 바로 위 참조).

이 主觀적 특징을, 아래의 “認定하는 表記”가 갖는 客觀적(=형태적=非매듭적=非核적=非서술어적: *아래 참조) 특징과 비교할 때, 오로지 통사론(=*위 참조)만이 있(支配)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와 같은 主觀적 表記에 머무는 한, 客觀적 表記를 지향하면서도 결국은 부한하게 主觀적 表記의 테두리 안에서 맴도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이 主觀적 表記의 참모습을 들여낸 客觀적 表記로 눈을 돌려서, 참된 分析적 表記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非分析적임을 認定하는 表記

* 위 그림 설명 및 그림에 딸린 公式에서 空白(#)은 형태의 空白(#)을 나타낸다. 그런데 형태를 중요시하고 거기에 力點(=強調)을 두는 空白(#) 없는 형태와 어휘의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를 가장 分析된 共存位置의 기준으로 삼는 이상, 이 형태의 空白(#)은 어휘만의 존재를 말한다. 이 “認定하는 表記”는, 위의 “主張하는 表記”의 경우에서와 같이, 이 형태적 空白(#)을 형태라고 主張하지 않고 그러한 主張은 형태를 어휘와 分析되지 않은 어휘적 성격을 띤 형태로서 誤認(=混同)하고 있음을 認定하는 表記이다. 왜냐하면 어휘란 본질적으로 分析不能의 것이고 형태란 分析可能의 것이므로, 그러한 主張은 分析不能의 어휘에 分析可能의 형태가 가리워진 것이라고 誤認(=混同)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分析不能과 어휘가(分析可能의) 형태를 1)식 표기의 경우는 等方向적으로, 2)식 표기의 경우는 異(逆)方向적으로, 分析하고 있다고 誤認(=混同)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分析되고 있지 않은 어휘와 형태의 (等方向 또는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를 分析된 형태와 어휘의 (等方向 또는 異(逆)方向적) 共存位置라고 誤認(=混同)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위 그림의 설명과 그에 딸린 公式에서 空白(#)으로 表記된 것의 가치(=의미)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지닌다.

예컨대, 1)식 表記의 公式: “ ${}_1表 - ({}_1變) \rightarrow {}_1深 \leftarrow ({}_2#) - {}_2#$ ” 또는 2)식 表記의 公式: “ ${}_1深 - ({}_1變) -$

(₂表·₁表→₁#·₂#)→(₂#)→₂#”에서, 空白(#)의 가치(=의미)는, 형태(=非매듭=非核=非서술어)의 空白(#)을 “認定하는 表記”의 입장에서 볼 때는, 1)식 表記에서나 2)식 表記에서나 어휘(=1)식에서는 深; 2)식에서는 表)적(=매듭적=核적=서술어적)인 성격을 띤, 어휘(=매듭=核=서술어)와 형태(=非매듭=非核=非서술어)의 (等方向적 또는 (準)異(逆)方向적) 共存位置(=一致), 즉 위 公式을 보 고 곧 그 右측의 空白(#)을 認定하고 그 左측만의 深, (變), 表만을 認定하는 表記이다. 그러므로 深, (變), 表는 모두 위에 달한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즉 어휘(=매듭=核=서술어)와(문) 分析(離)된 (=포괄하는=一致시키는=선택/의도하는) 형태(=非매듭=非核=非서술어)의 空白(#)을 認定하고, 어휘(=매듭=核=서술어)와(들) 分析(離) 안된(구성하는/실현하는=一致/선택·의도하지 않는) 형태(#) (非매듭=非核=非서술어)를 主張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그리고 “認定”은 “認定”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휘(=매듭=核=서술어)에만 力點(=強調)을 두고 있다는 것을 認定한다는 의미에서의, 어휘적(=매듭적=核적=서술어적)인 가치(=의미)를 지닌다. 바로 이것이 이 “認定하는 表記”가 갖는 특징이다. 즉 위 公式에서 左/右 둘로 “갈라져 있지 않은”(=分析/(左와 右가) 一致/(左가 右에 의해서) 선택·의도되지 않은) 것을 “갈라져 있지 않은”(=分析/(左와 右가) 一致/(左가 右에 의해서) 선택·의도되지 않은) 것으로 認定하는 특징이다. 이것을 앞에서 客觀적(=형태적=非매듭적=非核적=非서술어적=형태론적(=형태론과 통사론을 단어의 층위와 문장의 층위에서 각각 分析(=구별)하고 따라서 단어의 층위에서의 형태론만이 있(支配)하는, 그리고 그것은 단어의 층위와 문장의 층위에서 각각 형태론이 구별됨을 認定하는 것이 되는=단어의 층위와(가) 문장의 층위가(들) 一致/선택/의도하는(=포괄하는)=단어의 층위가 문장의 층위(들) 구성/실현하지 않는=(문장의 층위가 단어의 층위에 의해서) 선택·의도되는) 특징이라고 말한 바 있다(*앞 p.202;207-208 및 바로 위 참조).

이 客觀적 특징은, 위의 “主張하는 表記”가 갖는 主觀적(=어휘적=매듭적=核적=서술어적 : *위 참조) 특징과 비교할 때, 오로지 형태론(=*위 참조)만이 있(支配)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 客觀적 表記는, 사실상 그것을 지향하면서도, 결국은 어휘(=核=매듭=서술어)의 테두리 안에서 무한하게 맴도는 主觀적 表記의 참모습을 들어내고, 그것을 分析 내지 조월·탈피하여 참된 分析적 表記에 도달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위에서 길게 정리한 바를 토대로 하여, Roch VALIN의 Perspectives psychomécaniques sur la syntaxe(통사론에 대한 心理力學論적 조망)의 주요 내용을 간추림으로써, 이 글의 결론 부분을 삼기로 한다(*주의 : 주요내용마다 그 내용에 맞는 제목을 달고, 그것을 앞에서 정리한 “主張하는 表記”와 “認定하는 表記”의 비교에 맞게 설명함) :

○통사론의 정의 : (*바로 앞 pp.224-226의 정리부분을 요참조) :

pp.93-94: 우리는 처음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적인 몇가지 성공들을 열거함으로써 이 연구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의 찬성을 얻으려면 본 연구의 범위를 두배 내지 세배로 해야함을 깨닫고, 그것은 앞으로의 다른 연구에다 미루거나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심리역학의 현재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 서술에다 포함시키고자 한다. 그 책의 양이 허용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낮게 언어행동의 참된 현상에 병합될 수 있는 통사론의 정립에 대하여 심리역학론이 열어 줄 전망을 들어내는 데 전념하게 될 것이다.

그 통사론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논하게 될 것이다 :

단 어→통 합→문 장→표 현

즉, 통사 현상을 그 “내부성”과 “외부성”에서 정의하게 하는 조건속에서, 위와 같은 관계를 논하게 될 것이다. 그림으로 표시하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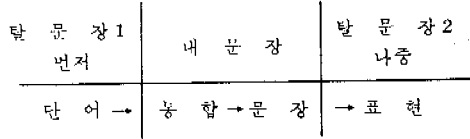


그림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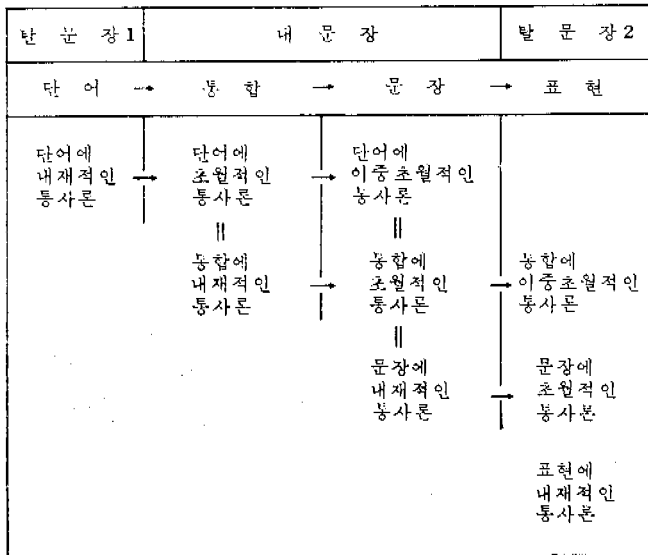


그림 63

p.94 : (그림 62 및 63의 설명) :

그림 62:

- * 탈문장 1(=먼저) : 순전히 형태론적이다.
- * 탈문장 2(=나중) : 문장들의 연쇄 내지 누합에 의한 확대된 표현(discours étendu).
- * 내문장 1(=통합) : 전통적으로 통사론이라고 부르는 부분으로서, 내문장 2(=문장)와 함께 위의 탈문장 1(=먼저)와 탈문장 2(=나중)의 중간 과도단계적 역할을 한다.
- * 내문장 2(=문장) : 내문장 1(=통합)과 함께 탈문장 1(=먼저)과 탈문장 2(=나중)의 중간 과도 단계 역할을 한다.

그림 63:

이 새로운 통사론은 아직 그 태아 단계에 있으나, 그 특징은 현상을 정연하게 분절하는 데 있다. 즉 현상이 인대 결합으로서 나타난다. 즉 한 현상은 그에 바로 선행하는 현상들에 그 존재를 힘입고 있으며, 또 그에 바로 후행하는 현상들은 그 한 현상에 그 존재를 힘입고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그 성격만이 다른) 통사론이라 할 수 있다(* 필자 강조).

○위 설명:

○앞의 끝 強調 부분의 “모든 것은 (성격이 다른) 통사론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앞의 정리부분: pp. 206-208의 “主張하는 表記”와 “認定하는 表記”의 비교項을 요참조.

○앞 그림 62의 “달문장 1(던전)(=단어)→내문장(=통합→문장)→달문장 2(나중)(=표현)”의 公式은 앞 p. 225의 “主張하는 表記”의 公式: “ $_1$ 深—($_1$ 變)→($_2$ 表· $_1$ 表→ $_1$ ·# $_2$)—($_2$ ·#)→ $_2$ ·#”에 해당함. 즉 이휘(=매듭=核=서술어) 위주의 公式임. 이는 형태(=非매듭=非核=非서술어) 위주의 3)식 分析적 表記의 立場에서 그것(=위의 “主張하는 表記”의 公式)과 모양을 같이 하면서도 그것의 非分析性을 “認定하는 表記”의 公式과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위 그림 63에서 “韌帶 결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통사론”은, 모두 이휘(=核=매듭=서술어) 위주의 “主張하는 表記”의 公式을 반영한 것이다(*앞 pp. 224-225 참조). 이 “主張하는 表記”와 그에 대립되는 “認定하는 表記”의 그림 및 公式의 비교에 대해서는 앞 pp. 213-215의 “화살표시 그림”으로의 비교 및 앞 pp. 221-224의 “통일된 그림”으로의 비교를 요 참조.

○이러한 “主張하는 表記”적 태도는, GUILLAUME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VALIN도 G.와 같이 다음과 같은 “主張하는 表記” 태도를 취한다.

p. 80:

내 재 상	초 월 상	이 증 초 월 상
<i>marcher</i>	<i>avoir marché</i>	<i>avoir eu marché</i>

그림 52

이에 대해서도 바로 위의 설명項 참조.

○이러한 “主張하는 表記”식 태도에 토대를 둔 VALIN의 통사론도 G.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p.X: (...)표상의 사실(faits de représentation)로서의 언어사실(faits de langue)과 표현의 사실(faits d'expression)로서의 (언어)표현의 사실(faits de discours)의 대립을 언제나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Guillaume이 관사의 문제(problème de l'article)이래 잠재적 측면(plan de puissance)과 결과적 측면(plan d'effet)으로 구분한 데서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 뒤 심층적(puissanciel)과 표면적(effectif)이라는 이름으로 구분되었다. 그 이유는 이 양자의 중간 과도적 순간으로서의 변형(effection)이라는 순간의 필요성을 그의 발년에 이르러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위치언어학으로서의 심리역학론적 방법에 바탕을 둔 통사론의 전개에 있어서 변형(=effection)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예감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위에서 이미 설명된, “主張하는 表記”의 公式: “ $_1$ 深—($_1$ 變)→($_2$ 表· $_1$ 表→ $_2$ ·# $_1$ ·#)—($_2$ ·#)→ $_2$ ·#”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이 公式에서의 “變形”은 “3)식 分析적 表記”의 公式: